



제 91 호

경상북도 의회소식



council.gb.go.kr

도민에게 편익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Gyeongangbuk-do Council News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2015. 8. (제1278회 제1차 정례회)



■ 화보(현 경상북도의회청사)

■ 의정소식 / 의정만남

■ 인물포커스 / 특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 0 정호 동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 광경호 조리장비특별위원회 위원장

1면

2~3면

4면

■ 특별기고

- 내방가사, 소중한 경복지 밤 문학으로서의 전승가

■ 위원회 활동 (상임·특별)

- 오호운정, 7. 폭경지, 함양보간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위원회, 여성발전특별위원회

5면

6~13면

■ 도정질문 / 5분 자유발언

- 도정질문 : 0 홍호, 박운하, 광경호, 김우한, 김정숙, 0 전략의원

- 5분 자유발언 : 조주홍, 조태림 의원

■ 주요 처리안건 소개

15면

지면안내

현 경상북도의회청사

제1차 정례회 개회사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을 위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 당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10대 경상북도 의회가 전반기 1년을 되돌아보면서, 오늘부터 17일간 일정으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비회기 중에는 선진국의 주요 정책 및 성공사례 등을 비교하는 선진 행정 체험연수, 지방자치법 개정 서울 토론회 참석, 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7일에 경주에서 전라남도 의회와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연대의식을 확인하는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두 지역의 미래비전 공유와 새로운 시너지 창출을 위해 상호협력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화합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장두옥 의원님을 비롯한 김봉교 대표위원님, 안희영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앞에는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을 위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대책 마련과 한중 FTA 시대에 경북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맞춤형 전략수립과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세심한 배려로 농업



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산되어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일

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식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비상급수 대책마련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재난취약 시설과 위험지역을 미리 살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는 도정질문과 추경안 심사, 지난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각종 조례안 등 안전심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도정질문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는 등 생산적인 질문과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결산 심사에는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어려운 경제와 무더위로 지친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알차고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6. 10.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17일간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안전처리 24건, 2014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경북도 및 교육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

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각종 안전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10일부터 이틀간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6명의 의원이 집행부에 대하여 도정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과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추경예산

과 결산 심사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되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안건은 경상북도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24건이며, 6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전을 최종 처리했다. ☺

의정만평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장대진 기획편집: 장영호, 임필규

편집인: 정병문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북구 영랑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열정을 다해 달려온 제10대 1주년 의정활동 성과

도민 현장 속으로... 발로 뛰는 의정 활동 펼쳐!

경상북도의회는 6월 2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10대 전반기 1주년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제10대 도의회가 첫 단추를 꿰지 1년간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화합과 열정이 넘치는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인 역할, 독도현지 임시회 개최, 전국 최초 '경상북도의회포럼' 출범,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공동협약체결, 해외 친선교류 및 우호협력 강화, 입법연구기능 강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그 간의 성과와 향후 의정방향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전문가 100명으로 7개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경상북도의회포럼을 전국 최초로 출범시킨 점을 강조

했다. 의정포럼은 입법정책 발굴, 정책타당성 검증, 주요 정책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등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활성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조례안 심사 95건 중 위원회·의원발의 조례가 44건으로 9대 의회 동기 대비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부하는 의회가 됐다고 자평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적발 위주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도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하고 산하에 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전국 17개 시도의회 입법정책연구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개정실무위원회를 구성,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을 검토해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등 4개 권역별

대토론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앞으로 국회와 중앙정부를 방문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북도의회와 자존과 위상강화를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한 점과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과 친선 교류 체육대회를 함께 한 점도 강조했다.

향후 출범 2년차 운영은 새천년을 준비하는 도약의 시기로 신청사 이전, 지방자치법 개정, 동서화합 교류 본격화, 지방분권 실현 가속화 등에 올인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을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제10대의회 의장단 출범



▲ 제10대의회 개원 축하기념 촬영



▲ 전남·경북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



독도현지 임시회 개최



▲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일본 방위백서 규탄



▲ 지방자치법개정 수도권 대토론회



▲ 경상북도 의정포럼



▲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정보기 행사

특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집중 인터뷰

우리 땅 독도 수호에 언제나
앞장서서 혼신의 힘 다할 것

이정호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호 위원장은 제9대 도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재선 의원으로서, 제10대 도의회에서는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이면서 독도수호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인정받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정호 위원장은 독도는 유구한 세월동안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민족자존의 섬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에 독도수호특위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독도수호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0대 독도수호특위는 그동안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 결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처리했고, 2014방위백서 발표, 시마네현의 '제10회 죽도의 날' 기념행사,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2015외교청서 발표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도발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인 규탄성명 발표 및 규탄결의대회 개최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우리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국무총리와 외교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송부했고, 12월에는 '독도수호특별

위원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집행부, 독도재단 등 소관 기관·단체와 함께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전략 및 2015년도 독도수호 정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기념행사강행, 중학교 교과서 왜곡 및 외교청서 발표 등 매년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도의원 및 도의회사무처 직원 150여 명이 지난 4월 23일 독도 선착장에서 제27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독도수호 규탄결의대회를 연계해 개최함으로써 독도수호에 대한 도의회와 도민의 결연한 의지를 세계만방에 널리 알리는 매우 뜻깊은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이정호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독도수호특위 위원 등 도의원 모두가 도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의 독도 침략야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에 참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일본의 독도 침략야욕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300만 도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우리 땅 독도 수호에 언제나 앞장서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 힘주어 말했다. ☀

행정의 신뢰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23년만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가동

곽경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1월 26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 자치시대에 모든 정책실현은 자치입법인 조례를 통해 나타나며, 현행 도청과 교육청의 조례 등 자치법규 전면조사를 통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소신 있게 주장을 펼친 분이 있다. 바로 칠곡 출신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곽경호 위원장이다.

경북도의회는 곽경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조례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추진할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지난 3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곽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을 맡은 곽경호 위원장(칠곡1)은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매사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외유내강형 스타일이다. 그는 제5·6대 칠곡군의회 의원(재선), 제6대 칠곡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제10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변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도 우직하면서도 신망이 두터운 의원으로 통한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2016.3.25까지)

활동하게 되며,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과 합치하지 않는 조례, 조례제정 목적을 완료하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그 기능을 상실한 조례 등을 관련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특히 지방자치제 정착과 지방분권화, 규제 완화 시책에 맞지 않거나 어문규정 표기법에 틀린 조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대상조례는 도청 소관 478개(조례 373, 규칙 105)이며, 교육청 소관 130개(조례 58, 규칙 72)로서 모두 608개에 달한다. 조사방법은 집행부와 의회사무처가 동시에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에 맞게 점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가 끝나면 특별위원회에서는 점검대상조례를 선정하고, 2016년 1월과 2월 중에 조사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3월중에 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곽경호 위원장은 "현행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게 된 것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한 1992년 이후 약 23년만에 구성된 것으로서, 앞으로의 활동과 조사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4월 도청·도교육청과 함께 구성된 실무TF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조례정비 활동을 본격화하여 행정의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

내방가사, 소중한 경북지방문학으로서의 전승가치

이정옥 위덕대학교 교수/전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조선시대 대표적 시가의 하나인 가사는 오랫동안 남성의 문학이었다. 대부분의 여성은 문학의 창작은 물론 향유의 기회마저 원전적으로 박탈되었다. 그러나 한글을 익힌 사대부가의 여성들 중에는 가사 창작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향유했다. 18세기 이후 경북의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가사를 짓고, 베끼고, 읽는 독특한 문학 향유의 전통을 만들어 내었다. 원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오히려 원본이 무의미한 수많은 가사와 제문과 편지글들은 베끼는 필사의 전통으로 수많은 글들을 재생산하고 유통했다. 필사 전통 못지않게 기억의 재생산으로 전승되는 낭송의 전통도 경북 여성들이 창조해낸 독특한 문학 향유방식이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두 사람 이상의 다중(多衆)이 모인 공공적 장소, 예를 들면 잔칫집의 안방과 같이 여성들만이 모인 장소에서 향유되는 방식이다. 조성 좋은 한 여성이 가사를 소리 높게 읽으면 그 외의 여러 여성들은 귀 기울여 듣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하는 자세를 가진다. 때로 감동적인 대목에서는 탄성과 찬사 등의 간접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잠시 낭송이 중단되어 술렁이거나, 곧 이어 한두 사람의 제지로 다시 가사 낭송은 계속된다. 한 번에 여러 편이 읽혀지기도 한다. 필사와 낭송의 문학 전통은 전승과 전파를 거듭하면서 수전, 수만의 가사와 편지와 제문의 이본을 만들어내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여성들의 문학전통이 경북 여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는 가히 여성문학의 세계사적 혁명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하여 학계에서는 "내방가사는 조선 후기부터 주로 영남지방에서 익명의 양반가 여성들에 의해 창작·필사·낭송의 방법으로 향수되고 유통되면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문학이다."라고 정의하

지 않을 수 없었다. 내방가사는 여성문학이면서 경북지방문학이라고 규정될 수 있기에 어쩌면 우리 한국문학사에서 주변문학이었다. 공식 출간의 기회에서 소외되었으며, 그 소외의 전통은 현재까지도 여전하여 활자로 옷을 바꿔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방가사의 원본자료집성의 기회를 얻은 적이 거의 없었다. 남성들이 주된 문화담당자였던 시기에 여성은 문학의 언저리에서조차도 소외되었듯이 한자가 문학의 지배적 문자였던 시대에 여성의 글쓰기는 더러 금기시되

유되지 않았고, 우리 경북에서만 그 향유가 한정된 덕에 남성문학과 한문문학으로부터 외풍을 덜 받고 전통을 지켜낼 수 있었음이다.

현존 내방가사 향유층의 최하 연령층은 70대이다. 그나마 어려서부터 진정이나 시집에서 가사를 습득한 향유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연령층은 그보다 훨씬 더 높다. 대부분 두루마리 형태로 보존되어있는 한글활판체 필사 자료를 막힘없이 읽어낼 수 있는 연령대는 80대 이상이다. 이는 근대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여성과 가학으로 한글을 배운

는 대단히 의미있고 가치있는 단체가 결성되어있다. 해마다 단오 즈음해서 내방가사 경창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그런 이벤트 자리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내방가사를 전승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담아 새롭게 창작한 작품들을 공유하게 되는데, 여기서 내방가사의 현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지역 외에도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현재에도 내방가사가 전승되고 있다.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는 내방가사가 적힌 두루마리, 즉 각편이 발견되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현대 생활을 소재로 한 가사는 계속 창작되고 있다. 이밖에도 경북의 기초정부나 문화원 차원에서 그 지역에 남아 전하는 가사들을 모아서 가사집을 발간함으로써 가사의 전승을 돕고 있고,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내방가사를 문집으로 엮거나, 자녀들이 할머니나 어머니가 평소 읊거나 보유하고 있는 각편을 효도나 후손교화 차원에서 문집형태로 묶어낸 것도 찾아볼 수 있다. 내방가사의 발상지인 경북지역에서는 그 맥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창작, 전승되어 보존되고 있다.

내방가사를 포함한 여성들의 '글하기' 전통은 더 이상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국가연구기관의 도움으로 내방가사의 자료구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바에 의하면 자료의 양적 성과는 엄청나다. 그런데도 우리는 학계에서조차도 자료 원전의 모습을 온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이 소중한 경북의 문학유산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내방가사는 남성가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남 담양의 한국가사문학관으로 소리소문없이 빼앗기고 있는 실정임을 알고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심히 안타깝다.☹

내방가사는 오롯이 경북 여성들의 문학적 성과로서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

는 것이기도 하였으니 출간의 기회를 얻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한다. 또한 조선시대 이후 현재까지도 중앙과 지방의 구분은 엄연하여 지방의 것은 무엇이든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만약 내방가사의 창작과 유통이 중앙에서 이루어졌다면 최소 몇 권의 가사집이라도 엮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위의 두 가지 이유 덕분에 가사 장르에서 유일하게 내방가사만이 향수와 유통의 전통을 온존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은 완전히 고전문학이 된 가사 중 유일하게 내방가사만이 현재진행형의 장르인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작자이면서 적극 독자였던 경북 여성들에 의해 사적으로 유통, 전승된 경북지방문학인 덕분이다. 그러므로 내방가사에 관한 한 그 문학적 중심은 경북이다. 내방가사가 예전의 문화 중심지인 서울, 곧 중앙에서 널리 향

여성 간에 낭송 리듬의 확연한 차이도 발견된다. 실지로 70세 이전과 이후 연령 세대와는 가사향유 경험에 있어서 상당한 단절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소위 신식교육을 받은 세대와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내방가사는 오롯이 경북 여성들의 문학적 성과로서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여성들의 입과 입을 통해 아직까지도 뻗어오는 내방가사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엄혹한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시기를 거쳐, 경제발전과 정보화 혁명을 이룩해낸 21세기 현재까지도 강한 전승력을 가지고 향유되어왔다. 또한 90년대에 들어서는 새로운 향유방식으로 부활하여 고전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십 수 년 전부터 안동에는 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회장 이선자)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 및 도민안전실 신설에 따른 경상북도의회위원회 조례 개정



1·2,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경상북도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 경상북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의결하는 한편, 제279회 임시회는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열어 예결특위 구성 및 위원선임,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금번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불용액이 전년도 결산 불용액 5억 89백만원 보다 2억 85백만원(0.9%) 증가된 이유를 묻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며, 그 외에는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대부분이 의회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휘장을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변경함에 따라 의원 신분증에 표시하는 한자 "議"를 한글 "의"로 개정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민안전처 설치에 따라 신설되는 「도민안전실」의 소관 상임위 배정을 위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개정과

의회와 집행부가 연계하여 재난관리와 소방, 방재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관련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연계하여 재난관리와 소방, 방재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 배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원안 가결했다.

한편, 홍진규 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두 인사를 통해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메르

스 확산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북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또한 "올 하반기는 도의회 신청사 이전 등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바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의회신청사 이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사무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민간보조사업 예산집행 전수조사 실시해야 미래 먹거리 해결 'ICT산업' 육성에 매진하길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278회 정례회 기간중인 6월 12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안전 전담기구 신설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경복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전담기구 확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을 위해,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기 위해 개정했으며,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

이어서 진행된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희수(포항) 위원장은 “민간이전 사업의 경우 매년 많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민간이전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태식(구미) 의원은 “ICT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제대로 된 ICT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위한(비례) 의원은 “고지서 이중부과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미숙한 행정처리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박현국(봉화) 의원은 “외국 업체가 가지고 있는 탄소섬유 원천기술을 이전 받아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항공산업 육성은 성공여부에 따라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사업의 성공은 관의 주도과 민간기업의 적절한 참여에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민간이전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전수조사 필요지적

이에 앞서 6월 12일 11시부터는 경상북도 의정포럼 기획경제분과회의의 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출범한 경북도 의정포럼의 후속 조치로 포럼에 참석한 김규호 의원은 “포럼 위원들은 의원들에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자문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 자문을 위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경제 위원회 위원들과 포럼위원들이 함께하는 연찬회를 계획 해보겠다.”며, “의정포럼 위원들의 적극적인 자문과 기획경제위원회 발전을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1. 의정포럼 기획경제분과회의의 간담회
2. 의정포럼 기획경제분과회의의 간담회 기념촬영
3. 조례안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활동

결산 승인...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 소관부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조례안 등 심의·의결



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제 제 구축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최태림(의성) 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용자사업의 용자금 이자가 연리 2%로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시중은행 금리 인하와 연동할 것을 촉구했다.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 제고

둘째 날 심사에서 먼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공유재산의 농지 매각과 관련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시군의 읍면' 지역에서 '시 단위 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의원 발의되었으나, 특혜성 논란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지역 5천제곱미터', 읍·면지역 1만제곱미터'로 수정 발의하여 의결했다.

이어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박영서(문경) 의원은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부지 및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도청 신도시내 주거지 형성 등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타시·도 사례 수집 등으로 민원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국가 가축 유전자원 센터 건물 신축' 건의 경우 대표지번 오기 등 의안 작성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금년도 말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한 지를 반문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승인전 사전에 행정절차 준수를 이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폐천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남진복(울릉) 의원은 하천부지 활용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매각에 신중을 기하여 특혜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지적했다.

안전행정국 등 결산심사에서 이정호(포항) 의원은 주요 사업 중 예산 불용률이 높은 사유에 대하여 묻고, 예산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단가 산정과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금번 정례회 결산심사 등을 마무리 하면서 황이주(울진) 위원장은 금회 결산심사·승인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역설하며,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예산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은 향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메르스 대응 비상대책 보고 환자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강구해야

용자금 이자율 시중금리 인하와 연동해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위원장 : 황이주)는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양일간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사를 했다.

첫째 날, 도립대학교 결산 심사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예산절감액 보다 집행잔액이 많음을 지적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무원교육원 심사에서 김정숙(비례대표) 의원은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전액 불용사유에 대하여 캐묻고,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투입 되도록 해야 함을 지적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에서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은 여성발전기금 적립액 35억원 몇 년째 변동이 없으며,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확대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심사에서는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메르스 대응 비상대책을 보고 받고, 질의 및 토론의 시간 등 확산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메르스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 해소를 위하여 도민들에게 정확한 사실 전달과 환자 발생시 무엇보다도 신속대응 체계



1. 제278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결산승인 등 심사
2. 메르스(MERS) 대응 비상대책 간담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심사
2. 팔공산자연휴양림 현장 방문



2014년도 예산 결산 승인,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월사업 증가 등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 촉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원현)는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6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이틀간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승인 및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먼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 심사에서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하여 감염검사 진행상황과 보유장비 및 인력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은 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확진여부 검사를 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메르스'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 질병에 대비하여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12일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세출예산 결산안 심사에서는 인력운영경비와 사무관리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부처의 표준안을 반영, 법적 효력 상실로 인한 관련 조례 폐지

비 등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을 뿐 아니라, 도서관 건립 관련 사업비의 잔액 불용 및 체육진흥시설비의 잔액 이월 등 이월사업 건수 및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며,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등 조례 4건 심사·의결

위원회는 또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 3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다. 그 결과 김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경북도가 운영하는 도내 자연휴

양림을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최근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 개장에 맞추어 휴양림 이용시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및 한복착용자와 지매서포터즈중 소지자에 대한 입장료·주차료 면제와 장애인 자별조항을 삭제하는 등 시의적절하게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집행부가 제출한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부처의 표준안을 반영하고, 법적 효력 상실로 인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등 상위 근거 법령의 내용 변경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했다. ☺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농축산유통국의 농작물 가뭄피해 대책상황 보고 청취, 가뭄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주문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심사에서 매년 불용액 증가세 지적, 보조사업자 페널티 적용 강화, 재해대책비 시군 추가 조기배정 등 적극적인 가뭄대책 촉구

농축산유통국 농작물 가뭄대책상황 보고 청취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78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1일 농축산유통국장으로부터 농작물 가뭄피해 예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효과적인 가뭄대책 추진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주요하천 유량 급감과 군소하천이 고갈되고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어 고추, 담배 등 농작물 피해로 농업인들의 마음이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현장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일선 농업현장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 가뭄장비·인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농작물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현재 농작물 가뭄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뭄현장을 직접 돌

러보면 피해예방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물대기, 관정개발 등으로 농작물 피해예방과 가뭄해소에 적극적인 대책추진을 주문했다.

정영길 위원장은 “적극적인 가뭄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6월 중순까지 강우가 적을 시 자체 가뭄대책비 추가 지원, 국비지원 건의, 예비비 투입 등 가뭄대책에 총력 대응해야 하며 의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개정 조례안 및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심사

농수산위원회는 6월 11일, 전제회의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3건과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안희영(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시장개방화에 대응해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 수출단체 자생력 확보 지원 등을 위한 기금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한창화(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및 홍보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며, 이흥희(구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위원들은 결산심사에서 보조사업의 신청 저조 및 중도 포기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 농기계 구입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보조사업 페널티 적용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과 도와 시군합동 점검반 운영 등 지도·점검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또한, 재해대책비 시·군 추가 조기배정 등 적극적인 가뭄대책 추진, 농가소득 유발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규모 증대, 동해안 연안침식 대책 수립, 과수농가의 농외소득 제고 방안, 기금운용의 안정성 강화 등을 요구했고, 특히 부적정한 예산운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조례안 및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심사



가뭄 피해 대책 상황 보고 청취

건설소방위원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1. 의정포럼 건설소방분과회의의 간담회
2. 의정포럼 건설소방분과회의의 간담회 기념촬영
3.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2014년 결산 심사



경상북도의정포럼 건설소방분과회의의 첫 간담회 개최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 심사

도청신청사 이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

의정포럼 건설소방분과회의의 간담회 개최 운영·활성화 논의

소중한 정책제언,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와 의정포럼 건설소방분과회의(분과회의 대표 상희선)는 6월 12일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양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정포럼 건설소방분과회의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진우 소방행정과장의 2015년 소방본부 주요업무 소개를 시작으로 상희선 분과회의 대표가 '경북소방 선진화와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경북소방 선진화에 대하여 소방유비쿼터스 서비스 확대, 소방용 로봇 개발, 소방재원 확충, 소방핵심 인재 육성 등을 제안하였으며, 국민안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세계최고의 소방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도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소방관련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기위해 소방인력을 의회에 배치할 것을 제언, 현 행정조직과 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사고발생시 상황보고를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정작 화재 및 인력구조지 풀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 소방서 본연의 공간을 어린이들이 친근하

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소방체험교육 공간으로 조성하여 찾아가는 소방서를 만들고 제의하는 등 여러 위원들이 소방분야, 지역균형건설분야에 대한 정책제언 및 분과회의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했다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경산, 새누리당)은 오늘 회의에서 나온 소중한 정책제언들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귀중한 정책제언 및 건설소방분야 활성화 전략구상에 분과회의 위원들의 폭넓은 조언을 부탁 드린다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관부서 의견청취의 건 채택 및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제278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중인 2015. 6. 12(금)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지역균형건설국, 소방본부, 도청신도시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결산심사를 했다.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사업은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8.708km를 총사업비 2,954

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착공하여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대구·경북 상생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을 찬성하되, 대구선 폐선 구간을 활용한 연장사업 검토, 사업구간 내 정거장 추가 설치 검토, 1~2호선 연결 순환선 구축사업 추진 등 3가지를 위원회 의견으로 추가제시하여 채택했다.

지역균형건설국 심사에서 홍진규(군위) 의원은 명시이월사업이 54건 721억 4천2백만원, 사고이월사업이 143건 793억 3천2백만원으로 해마다 이월액이 증가함을 지적, 박용선(비례) 의원은 자선도색비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집행잔액이 2억 4천만원 불용처리된 것을 지적, 박문해(포항) 의원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교량개제사업의 경우, 15억 4천 8백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의 이유로 이월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동절기를 예상해서 사업을 앞당겨 집행토



록 해야한다고 주문, 남천희(영양) 의원은 지수사업특별회계 결손금액 2천2백만원이 발생하여 결손처리된 사유를 따져 묻고 신중을 기해 결손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본부 심사에서 이수경(성주) 의원은 구미소방서 및 성주소방서 소방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 시설비 집행이 100% 완료되어 잔액이 전혀 없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따져 묻고, 남천희(영양) 의원은 포항남부소방서, 성주소방서 소관 인건비중 보수비가 타 소방서에 비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영의 문제점으로 보다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도청신도시본부 심사에서 김수문(의성) 의원은 전년도 대비 337억 8천7백만원의 이월액이 증가하였고, 이월액이 전제예산의 45.38%에 해당하는 1,341억 9천5백만원으로 크게 자지한 것은 사업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묻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강력히 촉구, 남천희(영양) 의원은 도청신청사가 4월 30일자로 준공되었음에도 아직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

교육위원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활동

도교육청 2014년 결산 및 제1회 추경 예산 심사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발빠른 대응 촉구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부모 및 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2014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현재 온 국민

을 불안하게 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대응과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부모 및 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15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

유재산관리계획안'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과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으며,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도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상위법과의 관계, 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 등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시켰다.

6월 16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순세계잉여금 및 사고·명시이월비 과다 등을 지적하고, 특히 불용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 집행에 대한 분석으로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중한 교육재정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6월 17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등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본 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사고·명시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행사성·소모성 경비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 질책했다. 특히 통폐합을 앞두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시설비, 교과연구회전 및 연수, 교육청 신청사 환경구성공모 등 선심성 예산 등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영식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각 부서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통합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선심성 예산 보다는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개발하여 투자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1. 메르스관련 현안보고
2. 의회신청사 방문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1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실적 등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하고,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6월 22일부터 2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실·국별로 실시했으며, 24일과 25일에는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24일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25일 계수조정을 거쳐 특위 최종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승인한 2014회계연도 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세입결산액 7조 8,732억원, 세출결산액 6조 9,470억원으로 9,262억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45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09억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608억원이며, 도교육청은 세입결산액 4조 104억원, 세출결산액 3조 6,681억원으로 3,423억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843억원, 지방교육채상환 21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66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이번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실적 등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심사했다. 특히, 지방공기업과 산하단체의 경영부실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예산이 많이 수반된 해양실�크로드사업과 세계물포럼행사의 성과와 투자효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불용액 및 이월액의 과다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했다.

또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 재정지침 준수, 유사·중복사업 편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을 꼼꼼히 심사했으며, 계수조정소위

원회(위원장 : 최태림 의원)에서는 문제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듣는 등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수업분석용 영상기기 구입 등 7건, 535,610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면서 “결산은 단순히 예산집행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결산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국가시책사업과 자체 역점사업, 교육환경 개선, 당초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사업과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분을 전액 반영하여 편성한 것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추경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도정질문

수요자 중심의 도정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평가체계 개선 등 촉구

이홍희 의원은 현행 경북도의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는 실질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도의 경쟁력 강화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평가의 객관성·타당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그리고 경북지역의 모든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내 상주기업 지원대책, 주요 전략산업 및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 각종 국책사업 성과 정밀진단 등을 요구했다. 또한, 도내 골프장의 난립 및 경영악화에 따른 지방세 체납 문제 등을 제기하고, 관련 대책과 향후 계획 중인 25개소 골프장에 대한 추가적 신설허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다.



이홍희 의원(구미)

아울러 구미 양포지구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최근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초·중·고 학교설립 등 교육환경 조성이 미진하여 타 지역 진학 및 장거리 통학 등 주민불편이 크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학교 신설 또는 이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서4축 공사중 영덕~안동분기점 구간 조기개통 제안 등 4개 분야 지적

박문하 의원은 첫 번째,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동서4축) 공사와 관련,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덕~안동분기점 구간의 조기개통을 제안했다. 조기개통이 되면 포항에서 신도청까지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이 1시간 30분 이내로 단축돼 비용과 시간절약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문하 의원(포항)

두 번째, 현실에 맞지 않는 과다한 인구산정에서 시작된 도시계획은 하지 않아도 될 SOC사업 예산의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시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 번째, 과소 읍면동 통폐합 문제를 거론, 포항 관내 장량동의 경우 주민 6만 6천 889명 대비 공무원이 21명 근무하고 있고, 기북면의 경우 주민 1만 2천 88명 대비 공무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어 1인당 행정수요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고 1년에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명목상의 유령위원회가 있어 이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해제 비율 최저 및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한 경북도의 방안 마련 촉구

곽경호 의원은 제278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재고를 요구했다.



곽경호 의원(칠곡)

또한,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유해물질인 슬레이트와 학교 건축물 석면에 대하여 도내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추진 속도가 매우 느린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기 때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본회의장 붕괴 사태와 관련하여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경북도가 사고와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는 해명도 없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하며,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를 질문했다.

경제권력 앞세워 거대기업 불법행위 눈감아

김위찬 의원은 석포제련소로 인해 인근 하천에는 상류에 비해 최고 115배의 카드뮴이 축적되어 낙동강의 또 다른 오염원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함에도 의도적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관련기관을 도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도지사에 환경오염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수문이 오히려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지금이라도 수문을 개방하여 자연생태복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산낭비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고 주장하고 보다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기 위한 도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위찬 의원(비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장애인고용 등 대책수립 촉구

김정숙 의원은 제278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수준 미흡과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도내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하여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김정숙 의원(비례)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은 2014년을 기준 저상버스 60대,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44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전국 평균 장애인콜택시 의무달성률은 80.39%에 비하여 46.7%로 낮은 수준이고, 저상버스 운영대수도 전국 평균 24.29대에 비하여 3.3대로 매우 낮음을 지적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경북도의 대책수립과 도내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에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안일한 경북교육청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채감축 특단 대책, 잦은 조직개편 지양, 지방도 945호선 조속 완공 등 촉구

이진락 의원은 현재 경북도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전방위적인 부채감축 노력과 함께 기존 지방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등 중·장기적인 부채상환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교육청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 20년간 31회에 걸쳐 잦은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제는 잦은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주문했다. 그리고 경북 최동남권 도로인 지방도 945호선과 이를 교차하는 904호선에 대해 관광객 유입 및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하루빨리 미도로 구간 개설과 선형개량화시행을 촉구했다.



이진락 의원(영주)

5분 자유발언

경북도 농축수산 분야 예산비율 감소 문제점 및 증액 필요성 제기

조주홍 의원은 경북도의 전체예산 대비 농축수산업 예산이 2010년도 13.6%에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 올해는 10.5%에 불과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농업종사자가 많은 경북의 농업예산 비율이 계속 낮아지면 농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미래 경북 발전의 전진기지가 되고 새로운 농어업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축수산업 예산편성 비율을 5년 전 수준으로 올려서 실질적, 미래 지향적인 정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주홍 의원(비례)

도청이전신도시, 광역개발계획 조속히 수립되어야

최태림 의원은 도청이전 신도시 광역개발계획 수립으로 북부권 주변도시와의 다각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3단계로 인구 10만명의 도시규모로는 수요창출형 도시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신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은 전혀 없는 실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가 경상북도 발전 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중심공간과 북부권 중심 허브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안동, 예전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태림 의원(의성)



제278회 정례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5. 29.

제안이유 : 2015. 4. 7. 지방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 관련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경북'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 전담기구 신설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 재난예방·대비기능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기능 통합, 이관 조정 및 동해안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 동해안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함.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5. 29.

제안이유 : 안전경북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전담기구 확대 설치, 소방 구조구급과 및 119안전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한시정원인 동해안발전본부장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 조정함.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5. 29.

제안이유 : 도민들의 민원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개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무 중 시장·군수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의 삭제와 근거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조직개편으로 부서명 및 소관사무 변경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5. 29.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4.12.10.)으로 "별표"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별표 4의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함.

▶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 김봉교 의원 외 11명 2015. 5. 29.

제안이유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이진락 의원 외 3명 2015. 4. 15.

제안이유 : 도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현행 도내 시단위의 동지역이 빠진 채 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도유지)인 경우만 대상이 되어, 시단위의 동지역과 읍면지역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함.

▶ 2015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5. 29.

제안이유 :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경주솔거미술관 기부채납,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 신축, 국가 가축 유전자원센터 신축, 한해성 특화품목 양식시설 신축, 구미 지방하천 구역 밖의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을 5년 이상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함.

▶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김명호 의원 외 9명 2015. 5. 29.

제안이유 :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및 한복 착용자나 치매서포터즈증 소지자 등에게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며 장애인 차별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

▶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5. 29.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 활동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하

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5. 29.

제안이유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국가기준과 도의 기준의 상이한 점을 수정하고, 환경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표준조례를 반영하고자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5. 29.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개정(시행 2013.5.24)으로 저공해 자동차 전환명령 등에 관한 업무가 도지사에게 시장·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함.

▶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의자 : 안희영 의원 외 6명 2015. 5. 29.

제안이유 :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경북 농식품의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품목별수출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한창화 의원 외 1명 2015. 5. 29.

제안이유 : 전통식품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식품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나아가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이흥희 의원 외 4명 2015. 5. 29.

제안이유 : 친환경학교급식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와 '도단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로 구분하고,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근거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관계 규정을 신설하여 친환경학교급식 및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5. 29.

제안이유 : 도시철도법 제6조에 근거하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사업의 기본계획(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임.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5. 29.

제안이유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5. 29.

제안이유 :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과 문구·단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뜻을 명확히 함.

▶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5. 29.

제안이유 :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함.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5. 29.

제안이유 : 교육감이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상위법령 및 개별 조례에서 위임되었거나 폐지된 사무 등과 중복되는 자구 등을 정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임.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5. 29.

제안이유 : 교육청 소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거규정이 부족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제도 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용어의 정리 등을 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5. 29.

제안이유 : 학교수용계획에 따른 신설학교 부지·건물과 교사 중·개축 및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장래 교육·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재산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적은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2015. 6. 15.

제안이유 : 「도민안전실·신설 등 경상북도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관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2015. 6. 15.

제안이유 : 경상북도의회 회장을 한글 존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에 표시하는 의원 배지 모형을 개정함.

▶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2015. 6. 04.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

▶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5. 29.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

▶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5. 5. 29.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



Silk Road Cultural Festival in Gyeongju 2015



8.21_10.18 (59일간)

장 소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및 경주시 일원

주 최 : 경상북도, 경주시

주 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www.cultureexpo.or.kr

유라시아 문화특급

실크로드 경주 2015

